



일곱번째 이야기

어느 선교사의 평범한 하루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17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었네요. 새해 아침 고국에 서처럼 맛나게 떡국도 끓여 먹고 빈대떡도 부쳐 먹으며 고향을 느껴보았어요. 올해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겠노라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세미나가 없는 날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비:를 기다리며(12월-3월 중순)

요즘처럼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깨끗하게 닦아서 부신 빈 물탱크를 준비해놓고 위에서 새롭게 부어 주실 맑고 깨끗한 비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다가도 빗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 물탱크가 열려 있는지, 홈통의 위치는 바로 되었는지, 물이 물탱크로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러 뒷마당으로 출동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집안의 빈 물동이

를 총동원하여 한 방울의 물이라도 흘러보내지 않을 양으로 통마다 물을 가득가득 채우는 일로 바쁘게 됩니다. 식수, 요리수, 빨래, 청소등 4 종류의 물을 나누어 각각 구별하여 놓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상추를 심었건만...

비가 날마다 쏟아지는 우기가 되기 전에 씨를 뿌립니다. 상추와 깻잎 등 채소가 먹고 싶어 씨를 심었는데 열무와 배추만 나고 상추는 싹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상추를 1,000립을 심으며 ‘제발 싹이 나라’고 기도하는 맘으로 뿌렸건만 1포기가 나다가 말았을 때의 그 실망감이란... 내가 포기하기 않으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올해는 로메인을 심으며 끝까지 맛있는 채소를 밥상에 올릴 그날을 위해 오늘도 계속 씨를 심습니다.



두부를 만들었지요! 대박!

5번의 실패 후 매번 성공시킨 두부 만들기는... 소야빈 2컵 정도를 하루저녁 불립니다. 그리고 믹서로 갈고 고운 베주머니로 치대어 콩물을 빼냅니다. 이렇게 몇 번을 하여 콩물이 전부 빠질 즈음 큰 냄비에 준비하여 한쪽으로 저으며 서서히 끓입니다. 콩물이 익어 맛있는 냄새가 날 무렵, 콩이 끓어 넘치기 바로 직전에 불을 끄고 한 김 내리길 기다리다 미리 만들어 놓은 물과 천일염 그리고 식초를 배합한 간수를 넣어 한두 번 저으면 몽글몽글 콩이 엉기는 것이 보입니다. 구멍 뚫린 각진 그릇에 베보자기를 깔고 물을 뺀 다음 슬며시 누르면 30분 만에 맛있는 손두부를 먹게 되는 기쁨이 만땅!



집에서 만든 두부 한모

녹두와 두부콩을 일주일에 한번 씩만 길러 먹어도 반찬이 많아져요. 콩나물무침, 콩나물국, 녹두빈대떡, 숙주나물무침 두부부침, 두부된장찌개, 비지찌개 등 ㅋ

혼자 심심하고 외로워서 어떻게 지내느냐며 남들이 궁금해 할 때는 피식 웃죠. 귀농한 도시인처럼 전혀 외롭지 않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와서 함께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오후에는 야외 친교시간도 가져요!

해가 한풀 꺾이기 시작하면 5-6시에 마실을 나가요. 필요한 것도 사러가고, 슈퍼도 가고,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모두들 “MY BEST FRIEND!”(?) 하며 반깁니다. 특히 슈퍼 아줌마 켈린과는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학교선생님인 남편이 주말에는 부인을 도와 성실히 일 해줍니다. 이사 가면서부터 제가 모르는 건 무조건 켈린에게 묻고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도 잘 모르는 현지사정이나 사람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면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가르쳐주고 대

신 해주고 하는 분입니다. 때로는 집에서 길렀다고 콩도 주고, 자신이 점심으로 싸온 차이(우유에 티와 설탕을 넣고 끓인 뜨거운 티)를 건네기도 하면서 즐겁게 수다를 떨며 더위를 달립니다.

재봉 스킨을 열었어요!

늘 4명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벌린을 안타깝게 여기며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까 생각하던 중에 재봉의 달인인 친구가 생각나서 초청했지요. 3주간 재봉스쿨을 열었어요. 너무나 재미있게 진행하였고 열매도 있었어요. 신시아는 취직을 했고 벌린은 자신의 아이들은 물론 옆집 아이들의 유니폼을 만들어 주면서 지금은 푼 돈을 벌고 있지만, 사준 재봉으로 기술을 스스로 익히면서 먼 훗날 재봉사가 될 것을 꿈꾸고 있지요. 이 또한 보람된 일중에 하나였어요.



19세 맘 신시아



재봉을 배우는 맘들



재봉스쿨 학생들과 함께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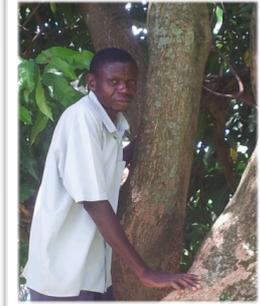
저희 집에는 여러 명의 친구들이 드나들고 있어요. 나무도 잘라주고 씨도 심어주고 천정위에 박쥐며 개미, 오두막집의 쥐를 박멸시키는 일, 물 길어주는 일 등 온갖 꾀은일을 성실하게 하는 조지, 페인트가 전문이지만 크고 작은 수리를 도맡아 해주는 마틴과 조용한 목수 마틴, 그리고 수도는 고치고 천정을 뺑 뚫어 놓고 말없이 가버린 배관공 미스터 쿠아치, 전기관련 무료상담 수퍼주인 쳐치힐, 보건소 운전기사지만 때로 내 운전도 해주는 후레드, 친절한 수선집 아저씨 아이작, 늘 온다 간다 말없이 왔다가는 워치맨 줄리우스, 맛있는 파파야를 가져다주는 루카스, ACK(성공회) 본부의 저희 집을 담당하고 있는 올 3월에 은퇴하는 삼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서로 어우러져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그 자체 살맛이 납니다.



재봉틀 선물로 가져가는 신시아



나도 아기 볼 줄 알아요!



망고나무에 자주 올라가는 워치맨 에드윈



일을 도와주는 벌린

BEE 소식

- 4.22-23 온비아 수련회가 1박2일 있습니다.
- 5.5-6 All &One 이 예담원에서 1박2일 개최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 한국을 잠시 방문하셨던 고종영/조경진. 윤경환. 정은희 선교사님 사역지로 귀환하십니다. 안전과 건강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선 선교사님 잠시 귀국하셨습니다. 건강위해 계속 기도해주세요